



## 갤럭시S9, V30... 스마트폰 밀로 바꿀까?

(2018년형)

### 내달 26일 MWC서 전략폰 발표

S9, 테두리 최소화·F1.5 카메라 장착 V30, 구글어시스턴트 등 AI 기능 추가 중국 화웨이·일본 소니도 신제품 공개



2018년 상반기 IT업계를 후끈 달궈 글로벌 회사들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진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은 2월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전시회 '모바일 월드

드 콩그레스'(MWC)에서 일제히 신제품을 공개한다. 세계 모바일 시장이 이제 성숙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새 전략폰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전자는 MWC 개막 직전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갤럭시S9'를 공개한다. 삼성의 새 전략폰에 대해 흘러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갤럭시S9는 테두리를 최소화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와 F1.5 카메라를 탑재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빅스비'의 새 버전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S8'과 '갤럭시 노트8'을 잇따라 출시하며 배터리 발화에 따른 '갤럭시노트7 초기 단종'의 악몽에서 벗어났다. 갤럭시S9는 이런 상습세를 이어갈 전략 제품이

다. 마침 시장 상황도 좋은 편이다. AI 등 새로운 기술 적용 경쟁으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최대 경쟁사인 애플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아이폰' 10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아이폰X'가 물량 부족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배터리 게이트'라는 악재가 겹쳤다. 갤럭시S9의 반사이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LG전자는 매년 상반기에는 G시리즈를 선보여 이번엔 원래 'G7'이 등장할 차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MWC에서는 G7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 지난해 하반기 전략폰인 'V30'의 2018년형 버전을 선보일 것이라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8년형 V30은 기존 성능과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구글어시스턴트' 등 AI를 활용한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의 전략 제품 발표 패턴이 달라진 이유는 스마트폰 사업 부문의 11분기 연속 적자에서 탈출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LG전자는 최근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 수장을 조준호 사장에서 황정환 부사장으로 교체하는 한편 인력 조정 등 구조개선을 단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MWC에서는 한국 기업 뿐 아니라 중국의 화웨이, 일본의 소니 등도 신제품을 공개하며 2018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도심 제한속도 50km 이하, 운전면허 합격 80점

### 교통안전 종합대책... 보행자 중심 개편

정부가 연간 4000명 수준인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 ● 횡단보도 모든 차량 반드시 일시 정지

종합대책의 핵심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이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 중일 때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향후 상가나 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한다. 도심지역 제한속도도 현행 60km 이하에서 50km 이하로 낮아진다. 다만 도로여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 면허갱신 교통 안전교육 이수

운전면허 합격기준이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아진다.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고 면허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도 바꾼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횡단보도·보도 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교차로·횡단보도 과속·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은 법정형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높아진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패쇄회로(CCTV) 확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등을 도입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 금지 등의 특별보호 의무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이 밖에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차량정지장치 같은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정책 취지를 홍보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볼보자동차코리아, 서울 서초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서초 서비스센터(사진)를 새롭게 오픈하고 네트워크 확장에 본격 나선다.

서초 서비스센터는 연면적 약 1893㎡, 지상 5층의 규모로 조성됐다. 1층과 2층은 일반 정비 시설, 3층은 주차장, 4층과 5층에는 각각 판매과 도장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올해 말까지 공식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를 각각 24곳과 25곳으로 확대하고, 볼보 개인전담 서비스(VPS)도 전 지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전담 테크니션이 예약과 상담부터 수리, 차량 출고 시까지 모든 서비스 과정을 담당하는 볼보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가.

원성열 기자

### 농심켈로그, 아침식사 나누기 사회공헌활동



농심켈로그는 올해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한 아침식사 나누기'(사진) 사회공헌활동을 세 배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서울 주몽재활원과 경기도 안성 신생보육원에 4180인분의 시리얼을 기부했는데, 올해는 대상을 전국 6개 보육원으로 확대하고, 켈로그 컴퍼니 시티즌십 펀드 3만달러(약 3200만원)를 포함한 1만7768인분의 시리얼을 기부한다. 농심켈로그는 국내 보육원 아이들이 식생활에서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2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일약한 식생활에 놓여진 아동들을 위해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원성열 기자

### 롯데홈쇼핑, 가정간편식 전문 브랜드 론칭



롯데홈쇼핑이 비비고, 배민찬 등 가정간편식 전문 브랜드를 론칭한다. 24일 오후 6시40분 비비고의 '국향찌개 베스트 3종 세트'를 선보인다. 육개장, 설렁탕, 사골곰탕을 한 세트 구성으로 총 22봉, 최대 44인분이다. 25일 오후 4시 40분에는 모바일 반찬가게 배민찬의 '홍신애 포기김치(사진)'를 단독 론칭한다. 정운상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은 "가정간편식 매출이 매년 15% 이상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트렌드 반영 상품 및 전문 브랜드 론칭으로 가정간편식 편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계획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통제권 강화로 이어지나

###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30일 시행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계획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12월28일 내놓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실천안이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따라 30일부터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며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 등 6개 은행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본인이 확인된 거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반면 실명거래를 이행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되며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이 돼도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금융사가 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됐던 가상화폐 거래가 양지로 이동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 출처가 명확해지는 만큼 자금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사에게 고객 거래기록을 보관토록 의무를 부여해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가 과세를 통해 가상화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경제현장.jpg



KT는 인공지능 챗봇 '기가지니'로 햄버거를 주문하는 '롯데리아 홈서비스'를 26일 출시한다. '지니야, 롯데리아 주문해줘'라고 말하면 추천 메뉴를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전화로 연결해주거나 전용 주문번호를 연결된 휴대폰으로 전송해준다. KT는 2월 말까지 햄버거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핫크리스피', '모짜 새우', '클래식치즈' 세 가지 중 하나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사진제공 | KT

###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3일

코스피지수	2536.60	▲	+34.49
코스닥지수	894.43	▲	+21.34
日 닷케이지수	2만4124.15	▲	+307.82
중 상하이 종합	3546.51	▲	+45.14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9	▼	-0.01
환율 (원·달러)	1072.00	▲	+0.5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6112.24	▲	+245.27

### 오늘의 얼굴

### 정몽규 회장, 평창선수단 격려금 1억



정몽규(사진)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23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재근 선수총장, 전충렬 사무총장, 김지용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장 등이 참석한 격려금 전달식에서 선수단에 1억원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16년 리우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장으로 선수단을 이끌었고, 대한축구협회장, FIFA 평의회 위원,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평창 동계올림픽 속박 인프라도 지원한다. 22일 강원 정선군에 문을 연 '헬니스 리조트 파크로'를 올림픽 기간 동안 각종 올림픽 관계자 지원 숙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 비즈 TALK TALK

● "고가주택자 보유세 인상 사실 아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3일 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설에 대해 "보유세 세율은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고 부인하며)

● "메세이프가 부당, 우리 기업 앞길 막지 못한다"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23일 미국이 태양광 전지 모듈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 "차기 회장은 적정한 연령대의 인물이 맡아야 한다" (김성태 부산상의 회장, 23일 차기 회장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적정한 연령대의 인물이 새 회장을 맡아야 한다고)

### 데이터 경제

### 수출 효자상품 김 생산량 파파리 상승세

수출효자상품 김의 생산량이 올해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마른 김 기준)은 생산량이 올해 1억5500만속(1속=1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규모다. 생산량 증가는 김이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양식시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전복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1만 8000여 톤, 문은 14% 가량 늘어난 3만 3000여 톤 생산할 전망이다. 반면, 광어·우럭·미역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편집 | 이진진 기자